



전주상의,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응원 동참

전주상공회의소가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 내 유치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지역별전문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통·관광·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함께 지역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비스타일, 남원시에 아동용 내의 기부

남원시는 25일 프리미엄 실내복 브랜드 무너무너로 유명한 (주)지비스타일(대표이사 박용우)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아동용 내의 500벌(1,3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내의 500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비스타일 김동희 물류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기안전공사, 녹색 미래 희망 나누시기 행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새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전북혁신도시 시계탑광장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황호준 부사장과 임직원 이기섭 전주시 덕진구청장, 혁신동 주민 및 상인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갈나무와 철쭉 등 1,800그루를 식재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천에 나섰다. 또한 시계탑 주변 상가 화단에 직접 나무와 꽃을 심고 지역 주민들에게 갈나무 모목을 무료로 나누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정읍시가 저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2026년도 보육 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25일 정읍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성미)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만 2세 영유아 필요경비 3만원 추가 지원을 비롯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월 1만 800원으로 인상 등 2026년도 핵심 보육 사업의 방향을 상세히 공유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서 간 협업 어려운 청소민원 해소

덕진구, 민원 해결체계 구축  
취약지역 지속 관리 나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는 단일부서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청소 민원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소에 나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그간 접수된 청소 민원 중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부서간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일례로 구는 지난 13일 성덕동 및 번영로 일대에서 운전자들의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아온 도로와 녹지대를 대상으로 5개 부서 7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우이동 비사벌유치원 인근 공원 일대에서 4개 부서 직원과 자원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해 상습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식재를 병행하는 등 쓰레기 재투기 방지와 도시 경관 개선에 힘썼다. 이와 함께 구는 매월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하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권희성 기자

시하고 그간 동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고질 청소민원 현장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등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새민금북로 일대 방치 쓰레기 처리 시에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응하는 등 단일부서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협업 또는 용역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화마가 잦아간 자리에 피어난 '희망의 집'

순창서 제8호 119행복하우스 준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5일 순창읍에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취약계층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사하는 '제8호 119행복하우스'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영일 순창군수, 오은미 도의원, 손준석 순창군의의 의장, 이오숙 소방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마을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입주 가족을 축하했다. 제8호 119행복하우스의 주인공은 박민순(61) 씨 가족으로 박 씨를 포함한 가족 5명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지난해 7월 4일 전기작업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살고 있던 주택(34.5㎡)이 전소되는 큰 시련을 겪었다. 시련을 접한 전북소방본부와 지역사회는 즉각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화재피해주민 지원기금'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EBS 나눔0700, 순창이너스클럽 순창군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지체장애인협회 등의 후원이 더해져 72.18㎡ 규모의 현대식 경량철골 주택이 완공됐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119대응과장의 경과보고, 축사, 입주자 가족의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박 씨 가족에게 '행복열쇠'를 전달하고, 순창이너스클럽에서 마련한 가전제품 등 생활 선물을 전달할 때는 참석자들의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이만호 기자

백운농협,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교환·폐기물 수거 캠페인



진안군 백운농협(조합장 김연태)은 지난 2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협의 따뜻한 동행이 지역사회에 진지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백운농협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 교환 서비스와 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교환은 지역별로 나누어 진행해, 성수면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백운면은 23일부터 27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트랙터·이앙기·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점검과 함께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었고, 가을철에는 예취기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무상 교환에 사용된 엔진오일은 진안군 농업 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지역 농업인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은 지난 24일 진행되어, 농가

에 방지되기 쉬운 페오일·폐비닐·농약 용기 등을 집중 수거했다. 이번 행사는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엔진오일 교환 비용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진안=유태만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늘봄전담인력 청렴 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25일 장수교육지원청에서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늘봄전담인력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늘봄전담인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늘봄전담인력의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장수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학교회계 교육과 함께 반부패 청렴 교육, 현장 간담회를 함께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영근 교육장은 직접 청렴교육을 진행하며,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전달식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이어가며 늘봄전담인력과의 소통에 힘을 실었다. 추영근 교육장은 청렴연수에서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서비스인 만큼, 작은 업무 하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청렴의식 제고, 공정한 업무처리 기반 강화,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수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장수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청렴의식 제고, 공정한 업무처리 기반 강화,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수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장수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자치도, 신학기 대학가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도는 25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여성근접전화366 전복센터, 전북경찰청, 도내 여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성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신학기 초기 대학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여성폭력 예방 활동을 연중 확대 추진하고, 도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이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남원시는 25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성(性) 가치관을 확립하고,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과 대처 방안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등 신종 범죄 예방 △가정폭력의 사회적 영향과 공직자의 역할 등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경운봉향우회,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



남원시는 지난 24일, 재경운봉향우회 이영정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000,000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23년 100만원, 2025년 1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200만원 등 누적 기부액 총 400만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영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영면 지사협, 90세 이상 어르신 생신축하 추진



남원시 이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주)는 관내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영(young)어르신 생신축하드려요!' 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영면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생신을 맞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고 생신 축하 노래 등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안부를 살피고 생활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힘썼다. /남원=김기두 기자